

헤렘(הֶרֶם)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김남일(백석대 교수)

I. 들어가는 글

II. 하나님의 전쟁, 헤렘

1. 헤렘이란?
2. 헤렘의 특징과 종류
3. 구약성서에 나타난 대표적 헤렘 사건

III. 헤렘의 윤리적 정당성 문제

1. 헤렘을 옹호하는 입장
2. 헤렘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

IV. 나가는 글

• **ABSTRACT** •

Herem(חרם) is a cruel war which carried by Israel in the O. T. The rules of Herem are perfectly destruction of failed enemies. According to biblical sight it was judgement of God and no other reasons to opposite. However another aspects, except biblical, no opinions to agree with that sight. Traditionally wars are regarded as most awful thing. Not only broadly damages but also sequelaes are bringing generation to generation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mention about ethical viewpoint about the war of the YHWH(יהוה). Above all I will try to mention general conception of it, and after another mention its ethical conceptions.

Keywords: YWHW, war, herem, ethic, destruction.

I. 들어가는 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예수의 가르침에서와 같이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랑의 실천자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서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기대감을 사라지고 만다. 구약성서 안에 있는 매우 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야웨의 전쟁”(war of God)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의 정복을 넘어서서 살육과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전쟁을 야웨께서 승인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점이다.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성에는 이러한 성서의 기록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터넷에서 야웨의 전쟁을 예로 들면서 야웨 종교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랑이 많으신 야웨께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지하드(jihad)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기사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헤렘 그 자체만의 문제를 가지고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많은 전쟁들 속에서 모두 다 동일한 윤리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성서에 나타나 전쟁에 대한 기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의 헤렘이 아닌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헤렘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하나님의 전쟁, 헤렘,

1. 헤렘이란?

헤렘(𐤇𐤍)은 하렘(𐤇𐤍)에서 나온 명사형으로서 그 용도는 대략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첫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레 27:28) 성물을 의미하는 단어다. 둘째, 외국군대와의 전쟁에서 정복한 그들을 철저히하고도 완벽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왕하 19:11; 대하 20:23). 셋째, 이 단어가 호팔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형벌이나 고난을 일으키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출 22:20). 넷째, 29번 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파괴와 죽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신 7:26; 13:17).¹⁾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에서는 헤렘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이 전쟁에는 반드시 예언자들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리 여부를 물어야 하며(왕상 22:7-28), 반드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삼상 4:4-6).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야웨께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했으며(삼상 7:9), 나팔을 불며 적을 치러 나가야 했다(민 10:9). 뿐만 아니라 노획한 전리품은 반드시 불태우고, 그곳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다 죽여야만 했다(수 6:20, 21).²⁾ 특히 헤렘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으며(수 7장) 그 결과는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금기사항도 있다. 신명기 23장 9절

1) Jackie A. Naude, 𐤇𐤍, *NIDOTTE*, ed. by VanGemeran,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84), pp.276-277.

2) Frederic Gangloff, "Holy War or Extermination by Divine Command?", *Theological Review* 25/1(2004): p.9.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9절)고 되어 있다. 그 악한 일은 구체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를 금해야 하며, 夢精을 한 사람은 반드시 정결의식을 실시하고(10-11), 화장실도 진 밖에 만들어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12-14), 진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 전쟁에서 예외 규정도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한 사람과(신 20:5), 포도원을 만들과 첫 수확을 하지 못한 사람(6),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사람(7),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사람(8)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예외 규정은 갓 결혼한 신랑은 1년간 징집이 면제되었는데(신 24:5), 여기에는 아내를 만족시켜준다는 명분 외에도 자손을 번성케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헤렘의 특징과 종류

1) 헤렘의 특징

갱로프(Gangloff)는 헤렘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전쟁으로 결론 맺고 있다.³⁾

첫째, 헤렘은 야웨에 대한 희생이다. 둘째, 헤렘은 야웨의 정의의 심판이다. 셋째, 헤렘은 문화 淨化를 위한 도구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내용은 바로 세 번째인 문화정화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갱로프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을 실패로 들면서 헤렘이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데⁴⁾ 이는 이방의 신명기사가의 전형적인 신학적 주장으로서 사실 헤렘을 정당화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대 의견을 가진

3) Frederic Gangloff, pp.18-20.

4) Ibid., p.20.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⁵⁾

2) 헤렘의 종류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헤렘의 종류를 더 세분화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완전한 파괴와 정복 헤렘(출 23:23-25; 신 7:1-26; 9:1-6; 11:23 등), 둘째, 서원에 의한 헤렘(민 21:1-3), 셋째,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 대한 헤렘(출 22:20; 신 13:1-19) 등이 있다.⁶⁾

(1) 완전한 파괴와 정복헤렘

출애굽기 23:23-25의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야웨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해야 할 세부적인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4절에서는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고 했다. 이 본문은 비교적 간단하게 헤렘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신명기 7장이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혼인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혼인관계나 언약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웨는 한 걸은 더 나아가 그들 주상(鑄像)을 깨뜨리고 단을 헐며, 우상들을 불살라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본문에는 물론 **מזבח**이라는 단어 대신 **שמה**(사메드, 파괴시키다, 황폐시키다)와 **אבד**(아바드, 잃다, 방황

5) 이에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신명기사가의 관점은 이스라엘 우월주의 내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신명기사가의 고백적인 입장일 뿐 사실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G. von Rad, *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 p.386).

6) 헤렘의 종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erem," *Encyclopedia of Judaica*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pp.343-355를 참고하라. 여기에는 헤렘의 종류 및 의미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하다, 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7:26). 이러한 단어는 비록 헤렘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그 의미가 이미 완전한 파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야웨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신 7:16).

여기서는 חָרַם (아칼, 먹다, 태우다, 소멸하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 역시 대대적인 파괴나 심판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헤렘의 파괴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인다.⁷⁾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한 파괴와 살육을 전제로 한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야웨가 가나안 사람들을 치시는 도구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질병(חֲלוּל)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보았다. 이 단어에 대해서 세이볼드(Seybold)는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다.⁸⁾ 이 말은 헤렘이 그만큼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그 배후에는 야웨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⁹⁾

(2)서원 헤렘

서원 레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쟁에 대한 서원

7)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C*, vol. 4 (Broad & Holman Publisher, 1994), pp.182-183.

8) K. Seybold, "חֲלוּל," *TDOT*(Grand Rapid: Eerdmann Publisher, 1997) 4:p.401.
여기서 그는 야웨는 질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질병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던 고센에만 질병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9) Eugene H. Merrill, p.183.

헤렘이고, 다른 하나는 야웨께 아주 바친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헤렘이다. 먼저 전쟁에 대한 서원 헤렘은 민수기 2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에 야웨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에 사용된 “멸하리이다”는 단어는 מָחַד 이다. 그런데 이 헤렘은 “전쟁의 승리를 해주시면”이라는 전제(前提)가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서원헤렘이라고 할 수 있다. 3절에서는 이 전쟁이 일어난 장소의 이름을 호르마(חֶרְמָה)라고 불렀다. 호르마라는 이름의 기원이 헤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버드(Philip J. Budd)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서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으로 이 서원을 통해서 야웨의 개입을 통한 반전(反轉)의 기회로 삼고자 한데 있다고 보았다.¹⁰⁾

다음으로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서원 헤렘은 레위기 27:28-29에 나타난다. “오직 야웨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야웨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말에 헤렘에 속하는 단어인 “바친 것”이라는 말이 세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나 히브리 원문에는 מָחַד 이 28절에 세 번, 29절에 두 번 포함 5번 나타난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일상적인 의미로는 제단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시(戰時)에는 완전한 살육을 의미한다.¹¹⁾

10) Philip J. Budd, Numbers, WBC, vol. 5 (Waco: World Book Publisher, 1983), pp.230-231.

(3)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 대한 헤렘.

출애굽기 22:20에 의하면 “야웨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다 멸할 지니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הֶרֶם이 사용되었다. 이 표현은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민족의 신앙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¹²⁾

이렇게 본다면 가나안에 거하는 백성들에 대한 헤렘 역시 이방종교로부터 야웨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게 만든다. 유목민인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인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닮아갈 것은 너무나 빠른 일이다. 그러므로 야웨는 헤렘을 통해서 이방민족의 종교를 제거함으로써 야웨와의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사실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나 가나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방법을 왜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N. Lofink, " הֶרֶם," TDOT 5:p.188.

12)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보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4), 226면. 차교수는 여기서 이 법이 이방 종교로부터 야웨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다른 고대 근동 종교의 전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았다.

13) 여기에 대해서는 김남일, 『우리가 궁금해 하는 29가지 구약문화이야기』 (살림: 2007), 36-41면을 참고하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헤렘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3. 구약성서에 나타난 대표적 헤렘 사건

1) 여리고 전투(수 6:12-21)

이 본문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필 일째 되던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니 성이 무너졌다(11-15).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가족들만 남겨두고 모든 물건과 사람, 드리고 가축을 다 죽였다(17-21).

이 이야기는 헤렘을 설명하는 이야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데 그것은 헤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성 안에 있던 물건을 모두 야웨께 바쳐야만 한다(17-19). 우리가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리품의 일부만은 야웨께 바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파괴와 야웨께 바쳐진 것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파괴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긴 물건도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이다. NIV는 “히브리어 **מָחַץ**은 완전히 파괴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랍이나 물건을 완전히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말하면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파괴와 바침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2) 아말렉 전투(삼상 15:1-29)

이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 야웨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아각이 가지고 온 좋은 짐승과 가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알 수 있다. 사울은 분명

14) David M. Haward, "Joshua," *NAC*, vol. 5, p.173.

히 헤렘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 가운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다”(18절)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은 이미 헤렘의 의미를 알고 참전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가 비록 15절에서 좋은 가축과 짐승을 야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나 사무엘은 19절에서 “탈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클라인(R. W. Klein)은 사무엘이 왜 이토록 분노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은 사울 자신에게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사무엘이 분노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⁵⁾ 이것은 매우 정당한 지적인데 실제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깨뜨린 헤렘의 규칙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3:1, 10; 8:3, 5; 9:24)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한 데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헤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한 것(헤렘)은 이스라엘이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라고 볼 때 사무엘이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해준다.¹⁶⁾

15) Ralph W. Klein, "1st Samuel," *WBC*, vol. 10, pp.150-151. 여기서 클라인은 사무엘의 분노가 옷사가 제단을 뿔을 잡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이 분노한 것(왕상 13:11)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미칠 재앙을 알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본다.

16) Hans W. Hertzberg,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London: SCM Press, 1964), p.125. 그는 하만이 ‘反 셈족주의자(anti-semitism)’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각과 사울에 관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III. 헤렘의 윤리적 정당성 문제

1. 헤렘을 옹호하는 입장

성서의 거의 모든 구절은 헤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보증되기 때문이다.

1)야웨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웨의 전쟁이다.

헤렘을 옹호하는 첫 번째 입장은 헤렘이 야웨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웨의 전쟁”에 따르는 후속조치라는 점이다.¹⁷⁾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국가신(國家神)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전쟁 당사자들, 특히 승리한 쪽에서는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당사자의 승리를 인정하는 신적인 재판(divine judgement)임을 더 중요시했다.¹⁸⁾

고대 이집트의 경우 왕 자신의 이름이 신이었음으로 그의 전쟁은 모두 정당하였고, 아수르 왕은 그의 신의 이름으로, 신의 대리인으로 정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의 군대장관과 나란히 또는 군대의 우두머리로 행진하였고, 적을 대패(大敗)시키고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 아수르 왕은 아수르 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바로 그것이 아수르 제국주의의 종교적 동기였다. 아수르 왕은 교전 상태에서

17) 트럼프 룬맨과 다니엘 레이드는 “戰士이신 야웨(God as a Warrior)”가 구약성서의 주제라고 본다. 헤렘은 신실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였으며 그 배후에는 야웨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주장이다(*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n, 1995).

18) 여기에 대해서는 Alan R. Schulman의 “Military organization in Pharaonic Egypt,” ed. by Jack M. Sasson,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1 (New York: Macmillan, 1993), pp.283-302를 참고하라. 여기에는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예술 및 건축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도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는 신의 사자임으로 승리만을 쟁취해야 하며, 만약 그가 실패했다면 다른 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태양신 라(La)의 현존(現存)인 파라오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전투에서 패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그가 전쟁에서 패한 경우라고 해도 그것은 태양신 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거나 신의 뜻이 바로 패배였다고 받아들였다.¹⁹⁾

그러나 구약성서의 헤렘이 고대 근동의 전쟁과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괴의 목적이 단순히 왕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왕이 상징하는 신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 이미 야웨께 바쳐졌다(ḥrm의 원래의 의미다)는 것이다. 즉 파괴함으로서 야웨에게로 바치는 의식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즉 파괴=바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렘의 정당성은 야웨께 바치는 행위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²⁰⁾

특히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정복 기사를 통해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야웨께 바치되...(17절)” “너희 바칠 문건을 스스로 삼가라(18절)”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야웨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웨의 전쟁임으로 그 자체가 윤리적인 정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이러한 전쟁 정당론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후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정치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도 없었으므로 전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기록도 별로 많지 않다.²¹⁾

19) Andrea M. Gnirs, "Military,"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400-406.

20) L. Daniel Hawk, "Joshua,"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pp.98-103.

21)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RGG). Handwoerterbuch fuer Theologie und Relogionswissenschaft, bd. IV, p.63.

신약성서에 의하면 이미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군인들이 있었다(마 8:9; 행 10:1). 그리고 3세기경에는 기독교인 군대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 전쟁의 살인적인 성격과, 기독교인이 살인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견해가 표명되기도 하였으나,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으므로 전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기독교 사상은 없었다. 다만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군복무는 반대하였으나 국가의 방비와 질서를 지키는 의무는 수행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황제의 군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딤후 2:1; 뱌전 2:17; 롬 13장).

콘스탄틴 황제 이후 기독교는 국가권력과 밀착하였다. 한때 군대에서 추방되었던 기독교인들은 군대에 다시 영입되었고,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주후 416년에 오직 기독교인만이 군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칙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어거스틴(354-430)은 전쟁을 “의로운 전쟁”(bellum iustum)과 “불의한 전쟁”으로 나누었다. “불의한 전쟁”이란 이웃나라를 정복하여 지배하려는 전쟁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의로운 전쟁”이란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전쟁을 말한다. 어거스틴은 이 “의로운 전쟁”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그 이후 중세기에도 계속 교회의 표준적인 전쟁 사상으로 인정되고 계승되었다. 이 “의로운 전쟁” 사상은 근대에까지 발전하였고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웨버(Theodore Weber)는 의로운 전쟁의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²²⁾

www.kci.go.kr

22) 맹용길, <평화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상』 325호(1985). 117쪽.

(1) 전쟁에 호소하는 표준들

- a. 정당한 의도(평화, 정의 질서의 회복)
- b. 정당한 원인(자체방어)
- c. 적임의 권위자(한 국가를 전쟁으로 부르는 권리를 가진 자)
- d. 최후의 수단(평화와 질서를 안전하게 하려는 최후 수단으로서의 전쟁)
- e. 성공의 합리적 희망

(2)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통제하는 표준들

- a. 비례의 원칙(선한 결과가 악한 결과를 능가해야 한다)
- b. 분별의 원칙(침략전쟁 반대, 비전투요원 폭격 금지)

이 “의로운 전쟁” 사상은 본래 불의한 전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공격과 침략을 받았을 때, 수동적, 염세적, 숙명적인 자세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었으나²³⁾ 이 사상 또한 각 국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오용되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의로운 전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결국 이 “의로운 전쟁” 사상을 빙자하여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의로운 전쟁사상으로서는 이 땅 위에 전쟁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의로운 전쟁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²⁴⁾

2) “하나님의 전쟁”은 해방 이데올로기에 기초된 약자보호의 방어전이다.

구약이 지니고 있는 가장 고대의 자료 중의 하나로 인정받아온 출애굽

23) 같은 글.

24) 이삼열, <그리스도교와 평화운동>, 『신학사상』 48(1985), 15쪽.

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는 구약 다른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기록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이란 어디까지나 약자보호의 방어전이요 그 기본이념은 해방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특징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홍해 사건에 관한 출애굽기 14장의 보도나, 사사시대의 전쟁에 관한 보도, 시편 탄원시, 그리고 구약역사 최후대에 속하는 역대기 역사가의 자료(느헤미야 9장)들이 모두 이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사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은 “긴박하고도 희망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약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응답사건임과 동시에, 그 부르짖는 약자를 “말과 마차(기병)”로 상징되는 강대한 인간의 군사력으로부터 해방시킨 약자해방사건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본다.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이 사료들은 모두 상투적이지만큼 이 힘 있는 강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고 그 강자의 위협을 받는 약자들은 또한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편”으로 철저히 이원화(二元化)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감히 “전쟁의 신, 야웨”의 역설적 이중성, 즉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궁핍의 속성”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 밖 고대 근동국가들의 신의 전쟁들이 지니고 있는 그 지배 이념적 배경과 이스라엘의 것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생기는 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증언하는 그 중요한 신학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²⁵⁾

3) “하나님의 전쟁” 이념은 이스라엘의 신 야웨를 “역사의 신”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역사적 해방사건으로서 신학화한다.

구약성서가 야웨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출 15:3)로서 의인화(擬人化)하는 그 신학적 의도는 결단코 전쟁의 합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 있는 인간들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죄스러운 인간역사에 참여 하셔서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죄스러운 인간들을 이용하여 오히려 이 세속세계에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바로 그 구원사의 하나님이 야웨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이 구약성서의 현실이다. 즉 하나님의 전쟁으로서의 인간구원활동 또는 인간해방활동은 어디까지나 죄스러운 인간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스러운 인간에게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비록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러나 전쟁의 용사이신 야웨께서 이 세계사에 참여·성육신하시어 악의 세력과 대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서의 하나님은 “전쟁용사”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그의 관념적 이미지를 비로소 벗어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²⁶⁾

동시에, 성서의 “구원”은 이렇게 하여 철저히 그 관념적, 추상적, 정신적, 영적 의상을 벗어 던지고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의 굴레로부터 해방 받는 “역사적 해방”이라는 개념과 일치하게 된다. 출애굽기 14:13을 보면, 이스라엘이 추격해 오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짐을 받는 저 “정치적 해방사건”을 가리켜서, 성서는 “여수알·야웨” 즉 “야웨의 구원”이라는 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 사실이 바로 그것을 웅변적으로 논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해방신학자

26)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n, 1995를 참고하라.

꾸티에레즈(G. Gutierrez)가 구원개념을 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 성숙되어야 할 인간현실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마침내는 억압받는 이웃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운동을 “해방의 영성”이라고 보았던 것도 이러한 구약적 현실과 동일한 맥락 안에 들어 있다고 하겠다.²⁷⁾ 하나님의 전쟁이념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초월자 하나님과 피안적 구원도 이 죄스러운 인간 역사 현실 안에서, 즉 피안(彼岸)이 아니라 이 차안(且岸)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한다고 하겠다.

- 4)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참여를 거부하는 주권적인 전쟁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편에서 해석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구약문학의 묘사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신이 인간을 도운다거나(수 10:14) 또는 인간이 신을 도운다거나(삿 5:23) 하는 “신·인 협력사상”(synergismus)이 현저하게 퇴색되고 오히려 인간의 전쟁참여의 의미를 대폭 축소시키거나 아예 인간의 전쟁참여를 거절하거나 하는^{32a)} 이른바 반전(反戰)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야웨 하나님의 군대는 그 군대의 수(數)를 적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줄인다거나(삿 6:35), 또는 이스라엘은 단지 여기서 “오, 아웨! 오, 기드온!”(삿 7:18)이라는 전쟁합성이나 또는 “부르짖는 일”만을 하였을 뿐 실전(實戰) 행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는다거나(cf. 출 14:14), 또는 아예 전쟁참여를 강력히 비난하고 거부하거나(시 68:30 [31])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신학화 된 하나님의 전쟁 이데올로기란 본질적으로는 반전(反戰)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27) 구스타보 꾸티에레즈, 『해방신학』, 성업 역(서울: 분도출판사, 2001), 78면.

홍해 앞에서 이집트군대의 추격을 받던 진퇴양난의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야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야웨께서 너희를 대신하여(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라는 말씀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 기적적인 홍해구원의 사건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로 내미는 다분히 예배의전적(禮拜儀典的)인 몸짓을 한 것 이외에는, 전적으로, “구름”, “흑암”, “광명”, “돌풍”, “바닷물”,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해서만 성취되었을 뿐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여기 나타난 성서기자의 이념은, 그러므로, “폭력 또는 전쟁폭력은 전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념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인간의 전쟁행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반전(反戰) 이념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반전(反戰) 이념은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있는 소년 다윗, 너무 어려서 그의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저 군복과 낫 투구와 칼 따위는 모두 내팽개치고 단지 “물매와 물맷돌 다섯 개만” 손에 든 소년 다윗은 방패, 칼, 창 그리고 단창까지 든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 나는 이제, 야웨의 인간해방은 칼과 창을 통하여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전쟁은 전혀 야웨에게 속한 “야웨의 일”이라는 것을 이 “회중”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삼상 17:45-47).

이러한 예배 의전적 신앙고백문 속에는 분명, 야웨의 인간해방은 결코 칼이나 창과 같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전쟁은 “야웨의 소유!”(cf. 출 15:3)이므로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헤렘: 타부)는 그런 반전(反戰) 이념이 뚜렷이 나타나 있

다. 더욱이 신명기적 역사가는 이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이런 신학적 진술을 덧붙이고 있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삼상 17:50)

2. 헤렘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

1) 구약성서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반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약성서 안에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쟁사상이 있는 반면 “평화전승”도 있다. 구약에서 “평화”라는 말은 “샬롬”²⁸⁾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샬롬”이란 일차적으로 결함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샬롬이란 말은 “좋은 상태”(삿 19:20), “번영”(시 73:3), 몸의 “건강”(사 57:18), “편안함”(창 26:19), 국가간의 평화 “조약”(왕상 5:26; 삿 4:17), “구원”(사 45:7) 등을 뜻한다. 이 말은 또한 “전쟁 없는 상태”, “무질서(Chaos)의 반대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구약성서에는 샬롬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자주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사상이 중요한 전승으로서 뚜렷한 맥을 형성하고 있다. 평화전승을 말해 주는 주요한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시 46:6-9; 76:3; 호 2:18; 사 2:2-5; 미 4:1-5; 사 9:3-7; 11, 1-9; 5, 2-5; 스 9:9-10 등이다. 이와 같이 구약성서에 평화전승을 말해 주는 많은 성경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미가서 4:1-5의 말씀이다.²⁹⁾

28) “샬롬”에 대해서는 E. Jenni - C. Westermann, Theologisches Handwoe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III, 1979, 919-935 ; C. Westermann, "Der Frieden (Shalom) im Alten Testament", in : Forschung an Alten Testament, Gesammelte Studien II, pp.196-229; 민영진, <구약에서 본 샬롬>, 『기독교사상』, 1979. 1. 46-73쪽, 김이곤, <구약성서적 입장에서 본 평화>, 『기독교사상』, 325 1985, 70, 98-101쪽을 참조.

29) H. Beck, <평화>, 『기독교사상』, 320 (1985.2) 78-84쪽 참고.

“말일에 이르러는 야웨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고 몰려 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 오라, 우리가 야웨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웨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가 4:1-5).

이 본문은 포로 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야웨의 전의 산”(1절, 비교. 대하 33:15), “백성들이 몰려 갈 것이다”(1절, 비교. 렘 51:44),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한다”(3절, 비교. 대상 5:18) 등의 용어와 (1)하나님 말씀이 순례지인 시온-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며 (2)민족들이 모두 시온으로 모여 오고 (3)온전한 평화가 전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사상 등이 모두 포로 후인 페르시아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본문은 말일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한다. (1)성전이 서 있는 시온 산이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이 솟아나게 될 것이며 (2)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며 (3)그 결과 전쟁이 폐지되고 영원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첫째, 야웨의 전이 서 있는 시온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시온 산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임과 동시에, 고대 근동지역 민족들이 자기 신들의 전이 있는 성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들에 대한 간접적인 반박이 되기도 한다. 즉 시온 산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는

말은 야웨가 이 세상 어떤 신들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족들이 시온 산으로 몰려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49장 22절과 60장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포로에서 데려오기 위함인가? 아니면 새로 지은 성전봉헌을 위해 보화들을 바치기 위함인가?(학 2:6 이하; 시 72:10 이하). 아니다! 민족들이 시온 산으로 순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 많은 민족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야웨의 “말씀” 즉 “토라”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돌파구를 야웨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시온 산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풀지 못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야웨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셋째, 그렇다면 그들의 난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해 주는 야웨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많은 민족들 즉 세계가 안고 씨름하는 문제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내려 주신 야웨의 말씀의 내용은 전쟁종식의 영구방안이다. 그 방안이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다. 시편 46편 9절과 호세아 2장 18절에서는 야웨가 직접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반면, 여기서는 야웨의 가르침을 받은 민족들이 자청해서 전쟁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피차간에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모든 군수산업공장들을 폐지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농기구공장들을 세우며, 모든 군사교육기관들을 폐지하여 버리고 군사교육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전쟁을 막기 위하여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군인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는 이러한 인간들의 주장이 옳지 않았음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무기부터 모조리 없애 버려야 하고 군사훈련도 아예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세계에는 평화가 오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4절)고 말씀하신다.

이상에서 말한 모든 사건은 이미 이 땅 위에서 성취된 사실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이는 “약속”임과 동시에 또한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요 “명령”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이방민족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신들의 지시를 따라 구태의연하게 살고 있다(5a). 즉 여전히 무기경쟁을 하고 전쟁을 일삼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야웨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즉시 하나님의 평화성취의 방법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고백한다(5b). 이것이 이방민족들과 야웨공동체의 차이점이다. 세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명분은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논리가 악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하여 전쟁 무기 경쟁을 벌이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전쟁이 종식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인류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세상나라들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화방법을 아직까지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의 실천에 앞장서야 하리라 믿는다.

2)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반대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을 청중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형태이건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타 군왕들이나, 예수 당시의 열심당들과도 달랐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³⁰⁾

예수는 자기 자신이 “유다인의 왕”임을 시인하였다(마 15:2,26).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요한 18,36). 그것은 일차적으로 칼 즉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상나라와 구별이 된다. 그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마 26:52)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의 힘을 사용해 그를 잡아 죽이려는 적들을 물리칠 것을 거절하였다(마 26:53). 이런 사상은 살인 무기인 “칼을 보습으로 만들라”(미 4:3; 사 2:4)는 구약의 평화전승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철저한 무력, 폭력 사용 반대 사상은 그의 철저한 이웃사랑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 대며, 송사하여 속옷을 달리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마 5:39-40)는 철저한 비폭력사상을 가르쳤다. 이러한 비폭력적인 이웃사랑은 “원수사랑”에까지 이른다. 이웃사랑은 예수의 가르침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³¹⁾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마 5:44; 눅 6:27-28)는 명령은 예수에게서만 나타나는 철저히 새로운 사상이다.

예수는 “왕”이되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엡 2:14-18; 골 1:20; 3:15 참조)이다. 신약성서에서 “평화”라는 말은 “에이

30) 빅터 P. 퍼니쉬,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 『기독교사상』, 325(1985.7), 202쪽 이하 참조.

31) 레위기 19:18 :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레네”(eirene)라는 말로 표시되고 있다. 이 ‘에이레네’ 전쟁의 반대상태를 의미한다.³²⁾ 그리고 평화는 무질서의 반대로서의 질서를 이룩한다. 또 평화는 죽음과 환난의 반대 상태인 “생명”에 대한 언급과 병렬되고 있다(롬 8:6; 요 16:33). 전쟁과 무질서와 죽음과 환난을 몰아내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군왕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나 영국의 평화(Pax Britanica)는 총칼로 우격다짐한, 폭력으로 진압한 외형상의 사이버 평화인 반면,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야말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평화에로 초대하시고, 또 이 “평화를 만드느 자”(Peace-maker)로 부르시고 계신다(마 5:8).³³⁾

3) 성서 편집자의 국수주의적 편견이다.

전통적인 비평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열왕기하까지는 신명기사가의 작품이다.³⁴⁾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주제는 다윗에게 하신 야웨의 언약이 축복과 심판(보응)이라는 두 가지의 공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신학적 의도가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것이라고 본다. 즉 다윗에게 하신 야웨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중심주의(Israel Centralism)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심주의적인

32) H. Beck, op., cit, 78-84 참고.

33) 이삼열, <그리스도교와 평화운동>, 『신학사상』, 48 (1985 봄), 5-35; 『기독교사상』, 320(1985.2) : 특집: 정의로운 평화의 모색 : “Friedensbewegung”, in : RGG Bd. II. 1135-41.

34) 사실 이 주장은 상당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신명기사가가 다윗에 대한 야웨의 축복과 언약사상이라는 두 가지의 도식 위에서 성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각 성서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sitz im leben) 안에 들어 있는 다양성을 놓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김남일, 『구약개론』(서울: 솔로몬, 2004)를 참조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은 정복과 파괴의 대상이고 전멸시킬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경향은 요나에게서도 발견되어진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야웨의 말씀에 대하여 국수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다(1:1-3; 4:1-2). 이러한 사상은 후기 예언서로 가면서 더 뚜렷해지는데 그 이유는 아수르와 바빌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침략전쟁이 심해질수록 외세에 대한 반대감정이 강해졌던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바빌론 포로후기에 역사를 기록했던 신명기사가의 감정 역시 국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IV. 나가는 글

이상에서 우리는 헤렘에 대한 간단한 고찰과 함께 그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헤렘에 대한 영적인 고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글의 관심이 아니었음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바로 헤렘을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전쟁으로 보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표면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답이 되겠지만 헤렘에 대한 성서의 언급은 하나님과 그의 계약 대상자인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창 12:1-3)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취를 나타내는 과정에

35) T. C. Butler, "Joshua," *WBC*, vol. 7, 70, 71.

서 생긴 전쟁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는 파괴하는 일 역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철저한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성서기자가 염두해 두는 것은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러므로 성서는 윤리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곧이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에 대한 윤리적인 대답을 하라고 하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게 될 반(反)야웨적인 문화와 문명을 제거함으로써 그 언약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야웨의 사랑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함으로써 야웨와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헤렘은 파괴가 주요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유지가 주요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해방신학』, 성염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1.
- 김남일, 『우리가 궁급해 하는 29가지 구약문화이야기』, 파주: 살림, 2007.
- 김남일, 『구약개론』, 서울: 솔로몬, 2004.
- 김이곤, <구약성서적 입장에서 본 평화>, 『기독교사상』, 325, 1985.
- 맹용길, <평화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상』 325호(1985).
- 민영진, <구약에서 본 살림>, 『기독교사상』, 1979. 1.
- 빅터 P. 퍼니쉬,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 『기독교사상』, 325.
- 이삼열, <그리스도교와 평화운동>, 『신학사상』 48(1985).
- _____, 『기독교사상』, 320(1985.2): 특집: 정의로운 평화의 모색 :
“Friedensbewegung”, in : RGG Bd. II
- _____, “그리스도교와 평화운동”, 『신학사상』, 48 (1985 봄).
-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보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4.
- Alan R. Schulman의 “Military organization in Pharaonic Egypt,” ed. by Jack M. Sasson,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1, New York: Macmillan, 1993.
- Andrea M. Gnls, "Military,"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 Westermann, "Der Frieden (Shalom) im Alten Testament", in : *Forschung an Alten Testament, Gesammelte Studien II*, pp.196-229.
- David M. Haward, "Joshua," *NAC*, vol. 5.
-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RGG). Handwoerterbuch fuel Theologie und Relogionswissenschaft, bd. IV.
- E. Jenni - C. Westermann, *Theologisches Handwoe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III, 1979.
-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C*, vol. 4, Broad & Holman Publisher, 1994.

- Frederic Gangloff, "Holy War or Extermination by Divine Command?", *Theological Review* 25/1(2004).
- Hans W. Hertzberg,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4.
- "Herem," *Encyclopedia of Judaica*,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 H. Beck, <평화>, 『기독교사상』, 320 (1985.2).
- L. Daniel Hawk, "Joshua,"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 Naude, ackie A., חֶרֶם, *NIDOTTE*, ed. by VanGemeran,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84.
- N. Lofink, "חֶרֶם." TDOT 5.
- Philip J. Budd, Numbers, *WBC*, vol. 5, Waco: World Book Publisher, 1983.
- Ralph W. Klein, "1st Samuel," *WBC*, vol. 10.
- Seybold, "חֶרֶם," *TDOT*, Grand Rapid: Eerdmann Publisher, 1997.
- T. C. Butler, "Joshua," *WBC*, vol. 7.

논문투고일: 2007.10.28

심사개시일: 2007.11.06

심사완료일: 2007.11.12